

시행령 폐기! 온전한 원청교섭 쟁취! 단결하고 투쟁하는 금속노조

2026년 금속노조 원청교섭 쟁취!

1

현장의 힘을 하나로!

- 1~2월
현장 교육 · 선전
- 원하청 단결
투쟁 결의

2

사회쟁점화 투쟁!

- 조합 · 지부
전국 기자회견
- 금속노조 확대간부
상경투쟁
- 노동부장관 면담 및
전조직적 교섭요구

3

승리하는 금속노조!

- 노동부 시행령
대응체계 가동
- 원하청 공동요구안
마련
- 원청 교섭 선도단위
집중 투쟁

2026년을 원청교섭 쟁취 원년으로!

2026년, 금속노조 힘으로 원청교섭 쟁취합시다!

노조법 2·3조 개정은

투쟁으로 쟁취한 소중한 성과입니다.

그러나 법개정이 끝이 아닙니다.

투쟁하지 않으면

법은 언제나 힘쎈 자의 편에 섭니다.

법 조항에 기대지 않고

금속노조 자력으로

원청교섭을 쟁취합시다.

자본의 탄압을 뚫고 금속노조

전조직이 단결하여 투쟁합시다.

2026년 온전한 원청교섭 쟁취를 위해

힘차게 전진합시다. 투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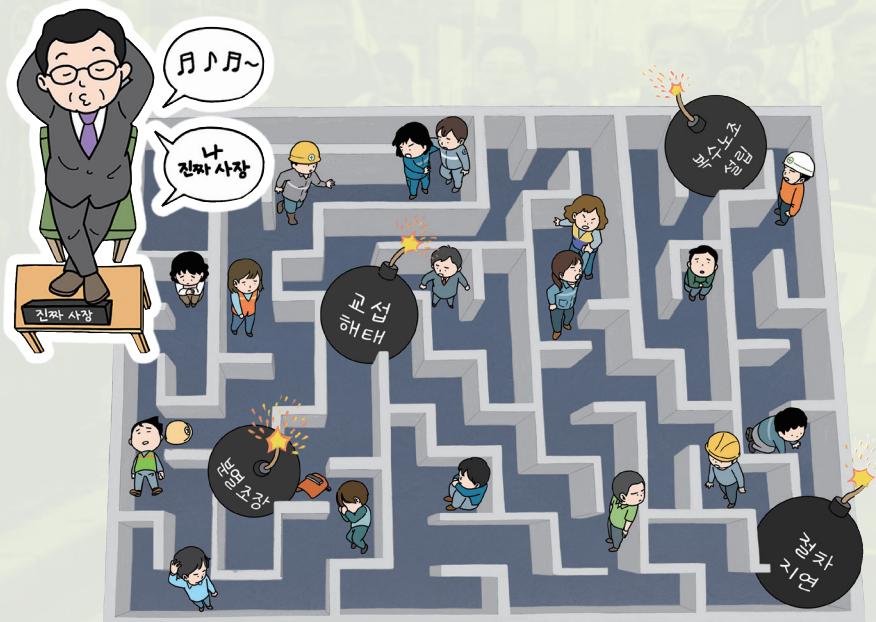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

노조법 개정 취지 훼손하는
시행령 즉각 폐기하라
원하청 단결로
온전한 원청교섭 쟁취하자



노조법 개정 취지 무력화하는 노동부 시행령 폐기하라!

노조법 2·3조 개정은 '진짜 사장' 원청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20년 투쟁의 결실입니다.
정부는 지금 '시행령'이라는 꼼수로 노조법 개정 취지를 무력화하려 합니다.
이 시행령은 하청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금속노조 전체를 노린 독약입니다.



노동자분열을 노리는 '노조 파괴 매뉴얼'

법원도 노동위도 원청 사용자와의 교섭은 창구단일화 대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정부 시행령은 원청 사용자를 기준으로 교섭창구단일화를 강제합니다.
이러면 하청지회와 원청지회 모두에게 혼란이 초래됩니다.

교섭 시작도 전에 '지뢰밭' 절차만 최소 60일?

사용자는 복잡한 시행령 절차를 악용하면 교섭을 무한정 지연할 수 있습니다.
교섭단위 분리에 30일, 창구단일화에 30일 ...
이 와중에 사용자가 복수노조를 만들어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 ...

노조하기 더 힘든 세상

노동자들은 진짜 사장 얼굴도 보기 전에 '절차'라는 높은 벽에 막혀 교섭권 자체가 형해화 될 위기입니다.

원하청 단결과 모든 노동자 단결만이 살길!

원청 정규직, 하청 비정규직 모두
금속노조 깃발 아래 하나로 뭉칩시다.
우리가 단결하면
어떤 꼼수 시행령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강력한 투쟁으로 온전한 원청교섭 쟁취합시다.

노조법 개정 취지 무력화하는 시행령 즉각 폐기!
원하청 단결로 온전한 원청교섭 쟁취!